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국내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와 시사점
- 노동생산성 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발행인 : 강인수
편집주간 : 김동열
편집위원 : 주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국내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와 시사점 - 노동생산성 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국내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3
3. 시사점	8

< 요약 >

■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일정 기간 생산에 투입된 노동투입량(취업자 수, 근로시간)에 대한 부가가치(산출량)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는 시간당 노동투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의미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를 점검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내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요인별) 노동생산성의 투자 측면 요인(자본장비율과 자본생산성)의 기여도 동반 하락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자본장비율 기여도가 2001~2007년 연평균 4.9%p에서 2008~2013년 4.0%p로 하락하고 자본생산성의 기여도는 동기간 연평균 -0.2%p에서 -1.0%p로 마이너스 기여도 폭이 확대되었다.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산업별)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는 노동생산성 개선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2014년 기간 중 평균 131(2001 서비스업=100)로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낮았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격차는 2001년 24p에서 2014년 138p로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2001~2007년 연평균 15.8만명 증가에서 2008~2014년 19.7만명으로 증가했다.

(인구구조 변화) 장년층(55~64세)의 취업자 수가 저임금 서비스업 부문 위주로 증가하여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 개선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년층(15~24세)은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진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의 경우, 하위일 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경력단절로 인해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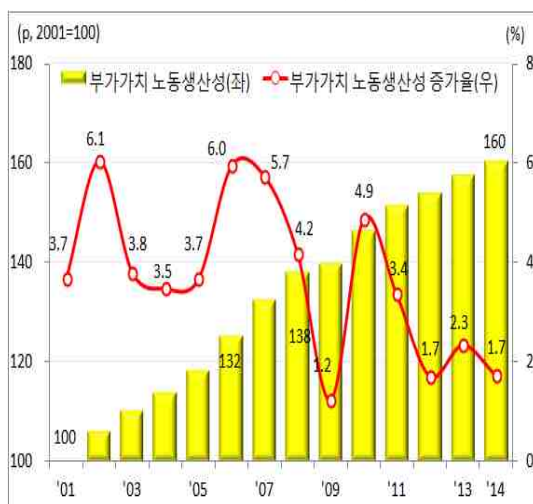
첫째, 노동 친화적 설비투자 증대를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사업구조 개선, 시장 개방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년층, 청년층, 여성 등 인구구조 별로 효율적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생산성과 임금 균형, 산학간 일자리 수급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1. 개요

- 노동생산성은 노동량 대비 생산량의 비율인데 경제 전반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중의 하나임
 - 노동생산성은 일정 기간 생산에 투입된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혹은 산출량)의 비율을 의미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노동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의 상대적 비율
(실질 GDP/총근로시간(취업자 수 × 근로시간))
 - 물적 노동생산성 : 노동투입에 대한 산출량의 상대적 비율
(산출량/총근로시간(취업자 수 × 근로시간))
 - 노동생산성은 경제 전반의 성장 가능성, 기술적 효율성 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임금결정 및 성과배분 등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기업 및 경제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임
 - 물적 노동생산성은 생산과정에 있어서 생산효율의 향상 정도, 기술수준의 변화 등 주로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
 - 노동생산성은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요소가격의 변화나 요소간 대체성의 변화에 따른 생산과정의 능률향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
 - 노동생산성의 향상 혹은 저하에는 투자 요인, 산업별 생산성, 인구구조 변화, 연구개발투자, 노동투입량 등이 요인으로 작용
 - 설비투자에 따른 물적자본 증가와 인적자본의 증가도 노동생산성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기술혁신은 동일한 노동투입량에서 더 높은 생산성을 유발
 -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표를 활용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을 의미

-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밀접한 관계를 보임
 -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7년 연평균 4.6%에서 2008~2014년 연평균 2.8%로 하락
 - 특히,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4년 1.7%까지 하락
 -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추세적 둔화는 시간당 노동투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의미로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과 밀접한 관계를 보임
 - 국내 경제성장률은 2001~2007년 연평균 4.9%에서 2008~2014년 연평균 3.2%로 하락(“【첨부 1】 국내총생산의 고용 측면 변동요인 분해” 참조)
 - 추세적으로 보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높은 가운데 적절한 노동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생산성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 경제성장률이 낮은 가운데 노동투입이 이루어지면 노동생산성 상승 정도는 미약한 상황을 나타냄
- 이에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를 점검한 후 노동생산성 개선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및 증가율 추이 >



<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DB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실질 GDP/총근로시간.

2. 국내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 (분석 방법) 요인별, 산업별,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를 점검1)
 - 요인별 : 노동생산성(Y/L)을 자본장비율(K/L)과 자본생산성(Y/K)으로 구분하여 투자 관련 요인별로 변화를 분석2)
 -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서 투자 요인별 생산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3)
 - 산업별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노동생산성 추이를 계산
 - 산업별 노동생산성과 취업자수 변화를 통해 보몰 효과(Baumol effect)⁴⁾ 분석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그리고 세부 서비스업에 대한 취업자수 증감 점검
 - 인구구조 : 장년/청년층의 취업자 수 변화, 여성의 임금별 일자리 측면
 - 청년층 일자리 기회 여부, 장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여부는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한 지표 >

항목	분석 지표
요인별	노동생산성을 자본장비율과 자본생산성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기여도 변화
산업별	산업별 노동생산성 격차와 취업자 수 증감
인구구조 변화	장년층(55~64세) 및 청년층(15~24세)의 취업 변화 여성의 임금별 일자리 비중 및 고용률

1) 생산성 결정 요인 중 노동투입량은 요인별 분석에서 자본장비율의 구성요소로 설명하고, 연구개발(R&D) 투자는 생산성 등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2) 노동생산성 = $\frac{\text{자본서비스물량지수}}{\text{취업자수} \times \text{근로시간}} \times \frac{\text{실질 GDP}}{\text{자본서비스물량지수}}$

3) 솔로(Solow, 1956)¹⁾의 성장이론에 따르면 자본장비율(K/L)과 노동생산성(Y/L)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 [$Y=AL^\alpha K^\beta$, $\alpha + \beta = 1$]의 양쪽을 노동공급(L)으로 나누면, $\frac{Y}{L} = AL^\alpha \frac{K^\beta}{L} = A \frac{K^\beta}{L^{1-\alpha}} = A \left(\frac{K}{L}\right)^\beta$ 로 표현할 수 있음.

4) Baumol(1967)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줄고 여기서 감축된 인원이 생산성이 낮은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생산성이 낮은 산업 고용은 증가하지만 동 산업의 생산성이 낮아 전체 경제성장률을 결정한다고 주장.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Baumol W. J.,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Issue 3, pp. 415-426.)

○ (요인별) 투자 측면 요인(자본장비율과 자본생산성)의 기여도 동반 하락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이어짐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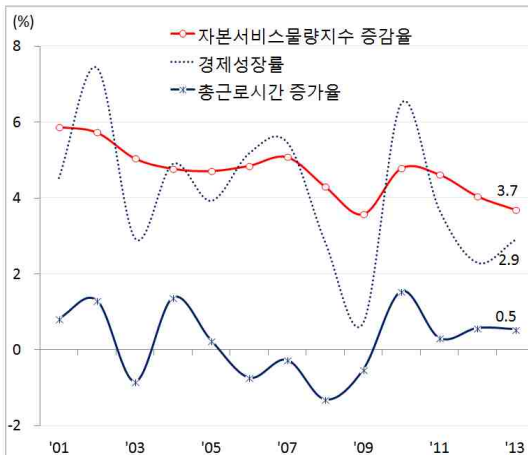
-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자본장비율의 기여도가 크게 하락

-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자본장비율 기여도가 연평균 4.9%p(2001~2007년)에서 4.0%p(2008~2013년)로 하락
- 자본장비율 크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자본서비스물량지수⁶⁾의 증가율은 연평균 5.2%(2001~2007년)에서 연평균 4.2%(2008~2013년)로 하락
- 자본장비율 항등식의 분모인 총근로시간의 증가율이 동기간 연평균 0.3%에서 연평균 0.2% 기록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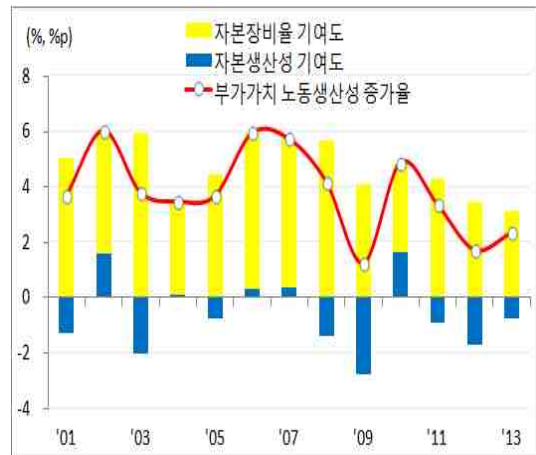
- 또한, 자본생산성의 기여도도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

-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자본생산성의 기여도는 동기간 연평균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0.2%p에서
-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 -1.0%p로 마이너스 기여도 폭이 확대

< 요인별 세부 항목의 증가율 추이 >



< 노동생산성의 요인별 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DB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주 : 1) 노동생산성 = 실질 GDP/총근로시간.
 2) 자본장비율(K/L) = 자본서비스물량지수/(취업자수×근로시간).
 3) 자본생산성(Y/K) = 실질 GDP/자본서비스물량지수.

5) 설비투자를 포함한 총고정자본형성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001~2007년연평균 4.9% ⇒ 2008~2014년 연평균 3.2%)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1.2%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 0.5%p로 하락.
 6)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본서비스물량이 이론적으로 생산함수[Y=f(L,K)]의 자본투입(K)에 가장 근접한 측정치임.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하위 자산의 생산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상위부분 증가율을 계산하는 지수형태로 작성함.
 7) 총근로시간은 취업자수(연평균 증가율 2001~2007년 1.5% ⇒ 2008~2013년 1.1%)와 근로시간(연평균 증감률 -1.2% ⇒ -0.9%)의 곱으로 계산.

○ (산업별)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는 노동생산성 개선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01~2007년 연평균 15.8만명에서 2008~2014년 연평균 19.7만명으로 증가

-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연평균 취업자수 증가, 2001~2007년 4.5만명 ⇒ 2008~2014년 13.6만명)이 주도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연평균 2.5만명 감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 연평균 4.5만명 증가
- 건설업의 겨우 동기간 연평균 3.9만명 증가에서 연평균 0.8만명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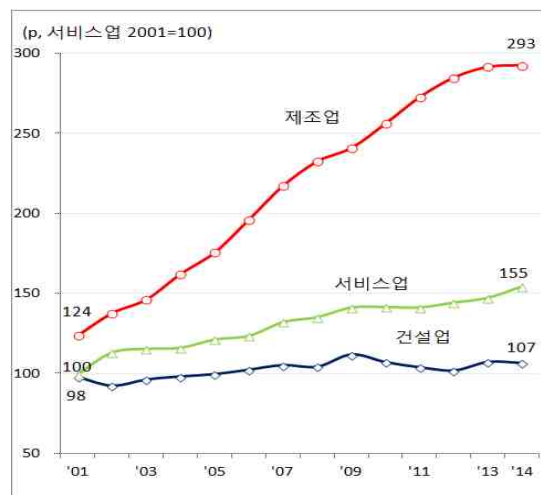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이고 격차가 확대

-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2014년 평균 131(2001=100)이고 동기간 연평균 3.4% 상승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2014년 평균 217(2001 서비스업=100)이고 동기간 연평균 6.8% 상승하였고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2014년 평균 103(2001 서비스업=100)이고 동기간 연평균 0.7% 상승

< 산업별 연평균 취업자수 증감 및 연평균 근로시간 증감률 >
(단위: 만명, %)

	취업자수		근로시간	
	'01~'07	'08~'14	'01~'07	'08~'14
제조업	-25	45	-1.1	-0.7
건설업	39	-0.8	-1.0	-0.9
서비스업	158	197	-	-
도매 및 소매업	-22	1.7	-1.0	-0.5
숙박·음식점업	1.9	0.7	-0.1	-0.3
운수업	21	23	-1.7	-1.4
금융·보험업	0.8	0.4	-1.6	-0.3
교육 서비스업	7.1	1.0	-2.0	-0.6
보건·사회복지	4.5	136	-1.1	-0.7

<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DB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1)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실질 GDP/총근로시간.

2)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기중평균.

- (인구구조 변화) 장년층(55~64)의 노동공급이 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임
- 장년층의 취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부문 위주로 크게 증가
 - 장년층의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수는 2002~2007년 연평균 4.8만명 증가에서 2008~2014년 연평균 9.7만명 증가로 증가 폭 확대
 -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동기간 0.6만명 증가에서 3.2만명으로 증가
- 장년층의 서비스업 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상승률이 하락
 - 장년층의 금융·보험업 임금은 2001~2007년 연평균 8.7% 증가에서 2008~2014년 연평균 0.6% 증가로 증가 폭 하락
 - 장년층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임금은 2001~2007년 연평균 1.6% 증가에서 2008~2014년 연평균 2.9% 감소로 전환됨
 -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 전산업 및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름(“【첨부 2】 산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對 시간당 임금” 참조)

< 장년층의 평균 취업자 수 증감 >
(단위: 만명)

	'02~'07	'08~'14
제조업	0.6	3.2
건설업	1.1	1.9
서비스업	4.8	9.7
도매 및 소매업	0.8	1.8
숙박·음식점업	1.4	2.2
운수업	1.5	2.3
금융·보험업	0.2	0.4
교육 서비스업	0.4	1.0
보건·사회복지	0.5	2.0

< 장년층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 >
(단위: %)

	'01~'07	'08~'14
제조업	8.6	4.3
건설업	1.7	4.2
서비스업	3.8	-0.5
도매 및 소매업	2.0	0.6
숙박·음식점업	0.1	1.8
운수업	2.0	1.6
금융·보험업	8.7	0.6
교육 서비스업	2.4	-1.4
보건·사회복지	1.6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장년층은 55~64 인구를 의미.

- 청년층(15~24세)은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진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15~2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30% 이상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30% 미만 지속)

- 또한, 노동시장의 진입연령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2006년 22.9세였으나 2012년에는 23.4세로 점차 높아짐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 노동시장 진입연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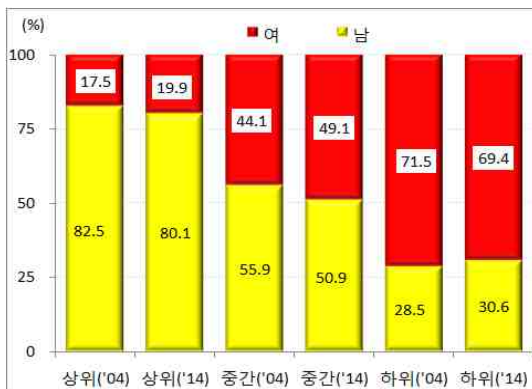
연도	노동시장 진입연령(세)
2006	22.9
2008	23.1
2010	23.3
2012	23.4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DB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2)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합동, 「고용률 70% 로드맵」, 2013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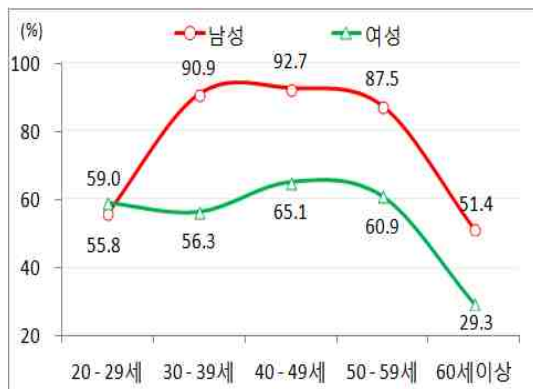
- 여성은 하위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경력단절로 인해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 여성이 하위일자리에서 비중이 2014년 69.4%로 70%에 근접한 반면, 상위 및 중간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와 49.1%로 여전히 작음
- 여성의 고용률이 30대에서 하락하는 M 커브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여성의 임금별 수준별 일자리 비중 추이 >



< 연령별 고용률 추이(2014년) >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DB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2) 통계청 DB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8) 청년층의 대졸이상 일자리가 2001년 255.3만개에서 2014년 215.5만개로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동안 대기업 일자리는 동기간 45.1만개에서 44만개로 감소.
- 9) 상위일자리는 중위임금(median wage)의 133%보다 큰 수준, 중간일자리는 중위임금의 67%~133%, 하위 일자리는 중위임금의 67% 미만을 의미.

3. 시사점

- 첫째, 노동친화적인 설비투자 증대를 통해 노동생산성 증대 유도 필요
 -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의 선도적인 R&D 투자를 확대
 - 높은 R&D 집약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R&D 부문 투자의 질적 향상도 유도
 - 국내 소비 제고와 투자 확대 등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국내총생산 증가 등으로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상승을 유발

- 둘째,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
 -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시장개방 등을 통해 생산성 개선을 유도
 -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도매·소매업, 숙박업·음식업은 공동사업 통한 비용절감, 기업화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 등 사업 방식 개선이 요구됨

- 셋째, 청년층 및 장년층,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 청년층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산업체 위탁교육 확대 등을 활성화
 -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동종업계 재취업 등 장년층의 효율적 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 육아휴직 정착, 보육서비스 확충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는 한편,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

- 넷째, 생산성과 임금 균형, 산학간 일자리 수급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한 일자리 확충 필요
 - 노동생산성 증가와 임금 상승의 미스매치를 좁히는 고용 정책을 통해 일자의 효율적인 배분 유도
 - 전대학과 산업체 연계 강화로 전문인력 공급을 확대 **HRI**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첨부 1】 국내총생산의 고용 측면 변동요인 분해

-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에 가장 크게 작용
 -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하락은 부가가치 증가율 하락을 의미하여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관계임
 - 국내총생산을 노동생산성, 1인당 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4가지 요소로 분해¹⁰⁾
 - 실질 GDP $\equiv \frac{\text{실질 GDP}}{\text{총근로시간}} \times \frac{\text{총근로시간}}{\text{취업자수}} \times \frac{\text{취업자수}}{\text{생산가능인구}} \times \text{생산가능인구}$
 $\equiv \text{노동생산성} \times \text{1인당 근로시간} \times \text{고용률} \times \text{생산가능인구}$
 - 경제성장률 $\equiv \text{노동생산성 증가율} + \text{1인당 근로시간 증가율}$
 $+ \text{고용률 증가율} + \text{생산가능인구 증가율}$
 -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도 줄어들면 노동생산성 증가율 폭 하락이 커질 수 있음
 -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 작용
 -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락(2001~2007년 연평균 4.9% \Rightarrow 2008~2014년 3.2%)하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평균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평균 4.6%에서 이후 평균 2.8%로 1.8%p 하락
 - 한편, 1인당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증감률이 각각 0.3%p와 0.1%p 개선되나 고용률은 0.2%p 하락

< 경제성장률의 고용측면 변동 요인 >

(%, %p)

	경제성장률 (A+B+C+D)	노동생산성 증가율(A)	1인당 근로시간 증가율(B)	고용률 증가율(C)	생산가능인구 증가율(D)
2001~2007	4.9	4.6	-1.2	0.3	1.1
2008~2014	3.2	2.8	-0.9	0.1	1.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DB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경제성장률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끝자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0) 방정식을 증가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Delta \ln(\text{실질 GDP}) \equiv \Delta \ln(\text{노동생산성}) + \Delta \ln(\text{1인당 근로시간}) + \Delta \ln(\text{고용률}) + \Delta \ln(\text{생산가능인구})$.

【첨부 2】 산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對 시간당 임금

< 산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감률 추이 >

	'01~'07	'08~'14
전체	4.8	2.5
제조업	9.8	3.9
건설업	1.2	0.4
서비스업	3.6	2.3
도매 및 소매업	4.8	4.3
숙박·음식점업	1.0	0.5
운수업	3.8	2.0
금융·보험업	7.5	3.6
교육 서비스업	0.1	0.6
보건·사회복지	0.2	-5.0

< 산업별 부가가치 임금의 연평균 상승률 추이 >

	'01~'07	'08~'14
전체	5.6	1.5
제조업	6.3	2.4
건설업	4.5	1.2
서비스업	6.0	0.7
도매 및 소매업	5.9	2.4
숙박·음식점업	2.7	0.7
운수업	5.5	2.5
금융·보험업	8.0	0.6
교육 서비스업	5.8	-1.5
보건·사회복지	5.2	-0.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DB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1)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실질 GDP/총근로시간.

2)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가중평균.

3) 운수업의 2001년 근로시간은 전산업의 2001년과 2002년 증감률을 적용하여 단순추정.

4) 운수업의 2001~2007년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2002~2007년 기간 수치임.